



미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트럼프 사실상 대세 굳혔다

美 대선 민주·공화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 완승 힐러리, 5개주 중 4곳 승리 ... 샌더스 돌풍 잠재워 트럼프, 대세론속 '중재전당대회' 시나리오 부상

미국 대선 경선판이 반환점을 돌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사실상 대세가 잡혔다. 15일(현지시간) 미니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클린턴은 전체 5개 경선 주 가운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주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접합되는 듯한 샌더스 돌풍을 잠재웠다. 트럼프는 오하이오에서만 패하고,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노던 마리아나에서 대승을 거둬 2위인 테드 크루즈의 추격을 가둔 것이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주류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본선행을 막으려는 중재전당대회 시나리오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어 아직 본선 대진표가 힐러리 대 트럼프의 맞대결 구도로 정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힐러리 대세 굳히기...이변은 없었다
=이번 경선은 힐러리 대세론을 확정 짓

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러스트 벨트(쇠락한 중북부의 공업지대)에서 버니 샌더스가 클린턴을 꺾는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클린턴은 미국 제조업의 전통적 중추인 오하이오와 일리노이에서 무난히 샌더스를 꺾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反) 자유무역 정서를 자극하며 지난 8일 미시간 주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켰던 샌더스의 전략은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샌더스의 비현실적인 보호무역 강화론보다는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본선경쟁력을 강조한 클린턴의 메시지가 더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두 곳은 본선의 표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풍향계 지역구라는 점도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는 대목이다. 클린턴으로서는 '남부'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것도 의미가 자못 크다. 클린턴은 이번 경선을 거치며 대의원 1천588명(슈퍼대의원 정수를 자극하며 지난 8일 미시간 주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켰던 샌더스의 전략은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공화당 3파전 구도로...트럼프 대세론 속 중재 전당대회 변수=공화당 진영에서는 선두 주자인 트럼프가 확실히 승부에 중지를 찍는 데 실패했다. 승자독식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오 두 곳 가운데 플로리다 주 한 곳에서만 승리한 것이다. 최하위였던 주류 후보인 케이시이 흠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오하이오를 거머쥐었다.

특히 케이시의 오하이오 승리는 전체 경선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커 보인다. 트럼프가 독주하는 흐름에 일정한 제동을 걸면서 주류 후보군을 확실하게 '교통정리'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케이시는 트럼프의 본선행을 막으려는 당 주류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반(反) 트럼프 전선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경선판도는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케이시의 3파전 구도로 정리됐다.

그러나 엄밀히 판세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트럼프의 대세가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60%에 가까운 대의원 수가 확정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매직넘버인 1천237명의 52%인 639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 대선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15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대북 대화 창구 열어 놔야"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장

한반도 정책 등 공약 극과 극

미국 대선 경선 2차 승부처인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본선에서 맞대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두 주자의 핵심 공약과 캠프 구성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주요 외교 기조=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클린턴 전 장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대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은 미치광이", "중국만이 김정은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등 그간의 드러난 공개 발언으로만 보면 대북 강경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철저한 공조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는 "방어해 주는 데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끝없이 잘못된 안보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까지 주장하고 있다.

◇통상·이민정책=15일(현지시간)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경제·통상분야 공약도 기조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클린턴 전 장관이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을 의식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지지자다. 미국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TPP는 물론이고 1994년 출범한 NAFTA와 한미 FTA 등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이민정책도 두 주자가 대척점에 서 있는 분야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최대 기반인 히스패닉 등 이민자에 관대한 입장을,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배타적 입장을 각각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술 판별 이렇게 하세요"

15일(현지시간) 중국 산둥(山東)성 짜오징에서 상공부 관리들이 가짜 술을 판별하는 방법을 주민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국제 소비자 권익보호의 날인 이날 중국 전역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김정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밀레니얼 세대"

영 일간지 가디언 선정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밀레니얼 세대' 인물로 꼽혔다.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20~35세의 젊은 나이에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주요 인물 10명을 선정하면서 김정은은 제1

위원장을 명단 첫 번째로 올렸다.

이 신문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죽음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최근 4차 핵실험으로 33세 생일을 자축했으며 몇 주 뒤에는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마크 저커버그(32)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김 제1위원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밀레니얼 세대 인물로 꼽혔다.

가디언은 "이제는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되짚어 볼 때 페이스북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눠서 생각하게 됐다"면서 "저커버그가 설립한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5억명에 이르며 그의 순자산은 465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3위에 올랐다. 가디언은 22세인 비

버가 한 주에 빌보드 100위 이내에 17곡을 올리는 등 비틀스와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가진 기록을 깨뜨렸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6천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의 순자산은 2억달러 가량이다.

정치적 인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로 떠오른 제2왕위계승자 겸 국방장관인 모하메드 빈살만 알사우드(30) 왕자가 4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둘째 딸 예카테리나(29)가 9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맨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경매로 취득,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조정가)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투자 가치! 좋습니다
리모델링후 연 5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